

대한항공, 국제항공화물 수송 2년 연속 세계 2위

대한항공은 '97년 국제 항공화물수송분야에서 독일의 루프트한자에 이어 2위에 올라 '96년, '97년 연속 세계 2위를 차지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발표한 항공운송통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작년 국제선 정기항공편 화물운송부문에서 55억5천3백만 톤·킬로미터(각 편당 수송톤수에 비행거리(킬로미터)를 곱한 값)를 기록, 61억4천1백만 톤·킬로미터인 루프트한자에 비해 5억 88천백만 톤·킬로미터가 적었다고 동 사는 밝혔다.

대한항공은 작년 반도체, 모니터를 비롯한 PC 주변기기, 개인 휴대통신 단말기 등 소형 수출품의 수송호조로 96년 대비 17.2%의 높은 신장세를 보여 2.4% 성장한 루프트한자나 5.0%인 에어프랑스를 크게 앞질렀다고 덧붙였다.

동사는 현재 B747 12대, MD11 3대, A300 2대 등 모두 17대의 화물전용기를 20개국 30개 도시에 운항하고 있다.

대만, 중국직항 항공편 승인

대만 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대

만-중국간 항공기 직항운항을 잠정 승인하기 시작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지가 보도했다.

동 신문은 홍콩 신공항의 화물터미널 이용이 어렵게 됨에 따라 대만 당국이 화물기의 중국 직항을 승인, 홍콩과 가까운 중국 남부 선전으로 직항하도록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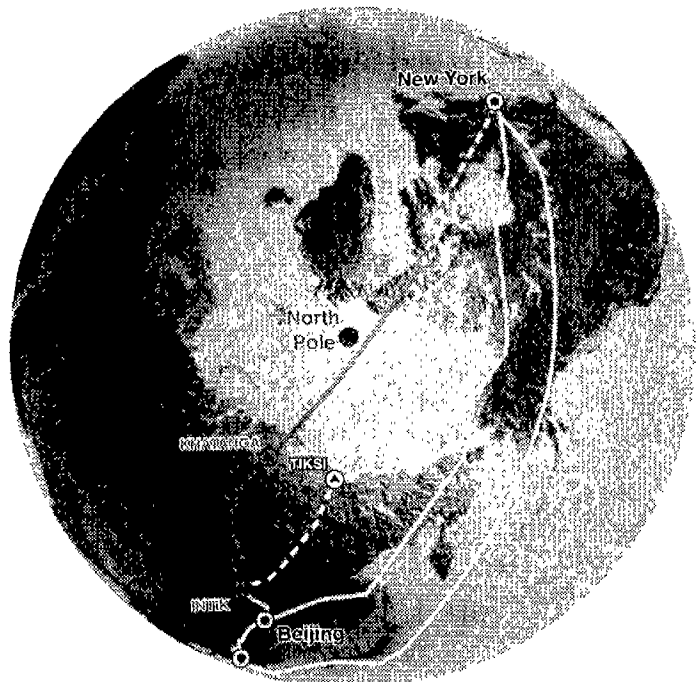
대만은 중국 본토와의 항공기 직항운항을 지난 50년간 금지해 왔으며 양국간 항공편은 홍콩이나 마카오를 경유해 왔다. 중국과 대만은 항공기 직항 운항문제를 협의해 왔으나 리덩후이 대만 총통의 비공식 미국 방문 이후 양국 관계가 악화돼 2년6개월째 협상

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임시 승인된 대만(대북)-선전간 화물기 직항 노선이 계속 상설화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중국의 현직 장관이 대만을 처음으로 공식방문 하는 등 양국 관계가 최근 해빙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반기 항공기 승객 크게 줄어

경제위기 여파로 올 상반기 전국 공항의 항공기 승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단은 올 상반기에 전국 16개 공항의 항공기 승객은 2,597만 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홍콩과 북아메리카 사이의 현경로와 북극경로

기간의 3,440만 1천명에 비해 24.5% 줄었다고 밝혔다.

국내선은 25.8%, 국제선은 659만 4천명으로 20.3% 줄었다. 공항별 감소율은 △김포 23.3% △제주 27.4% △대구 20.9% △김해 26.5% △광주 28% 등이다

EC, 항공로 개방 이견에 따른 제제를 취할 움직임

EC는 미국과의 쌍방 항공로 개방 협정을 폐기하라는 EC선임국인 브뤼셀의 조치를 무시한 국가에 대해 이번달내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 3월 EC는 각국의 개별협정은 유럽단일시장의 원칙 위배를 주장, 브뤼셀에 전체 유럽연합을 대신하여 항공로 개방 협상의 위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데드라인으로 주어진 5월 중순을 넘어, 연장된 6월 16일이 지난 지금까지 EC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달말까지 법적 조치가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오스트리아 등 8개 국가는 미국과의 항공로 개방협정을 맺은 상태이고, 영국의 경우 부분적 협약을 맺고 전체 협약을 진행 중이며 포르투갈과 이탈리아는 워싱턴과 쌍방협정을 논의 중이다.

이 과정은 지난 6월 17일, 18일에 있는 Europe transport minister모임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지만 당장 논의 될 것 같지는 않다.

US Airways A330-300 구매키로

US Airways는 내년 말 약 30대의 A330-300을 도입키로 결정하고 차세대 에어버스를 운행하는 첫 미국 항공사가 될 예정이다. 에어버스와의 협상은 보잉의 767-300/400과의 경쟁이 있었다. 수주주문은 확장형 항공기조종을 위해 새로운 협약을 요구하는 US Airways 파일럿 조합과의 마지막 임금협상후 이루어 졌는데, 동사는 이미 에어버스와 400 단일통로형 항공기 주문체결을 끝낸 상태였다. 16대의 옵션과 더불어 14대의 A330는 확정주문상태이다. 1999년 사분기의 첫 도입에 이어 2000년까지 6대가 더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엔진선택에 있어서는 General Electric, Pratt & Whitney와 Rolls-Royce가 사이에서 확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Northwest와 TWA는 A330대를 오래전에 주문했지만, 양 항공사 모두 인도를 연기했다. US Airways회장인 스테판 울프

는 증가하는 대륙간 운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30대의 항공기를 구매할 계획이며, 가능한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US Airways는 대륙간 운송에 12대의 200석급 보잉 767-200을 운행 중인데, A330는 278석규모를 수용하는 삼등석으로 배열하여, 대륙간 운송에 도입될 예정이다.

케세이, 미국 아시아노선 최초 북극경유 비행

케세이 퍼시픽항공은 7월초 뉴욕에서 홍콩까지 노스톱 비행을 준비중이며, 1999년에는 미국 동부해안에서 아시아로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경유하여 아시아까지 넘어오는 4개의 북극경유 노선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당국은 New York으로부터 출발 7월6일 홍콩에 도착하는 시험 비행을 허가했다.

케세이는 북극을 처음 경유한다는 점과 더불어 홍콩과 뉴욕 케네디 공항사이의 가장 빠른 비행시간의 기록을 기대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연합(IATA)은 또한 다른 비행사를 통해 두 달간의 시험비행을 추구하고 계획 중이다. 러시아는 1999년말까지 4개의 북극경유노선을 개설한다는데 동의했다.